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속보: 2012년 1월 13일

쿠오모 주지사, 이란 제재 법안에 서명하다

오늘 앤드류 M. 쿠오모(Andrew M. Cuomo) 주지사가 Iran Divestment Act (이란 제재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이란 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계약 체결을 차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 새 법안으로 이란의 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뉴욕주와 비즈니스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라고 쿠오모 주지사가 말했다. "이 자리를 빌어 스켈로스(Skelos) 집권당 대표 와 실버(Silver) 대변인께 남다른 리더십과 이 중요 법안에 들인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Iran Divestment Act 이란 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 계약을 수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뉴욕주 총무국은 이러한 투자에 참여한 기업 명단을 만들 계획이며 이들 기업들에게 이란 에너지 분야를 지원하는 한 정부 계약에 입찰할 수 없음을 알릴 예정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기업들로 하여금 정부 계약을 신청할 때 이러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관련 업체의 항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90일 후에 발효됩니다.

집권당 상원 대표 딘 G. 켈로스(Dean G. Skelos)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 법안으로 뉴욕은 이란 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주정부 계약을 수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법안의 제정으로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중동의 우호국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 이란의 핵무기 건설 야욕을 규탄하는 데 힘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께서 이 법안 통과에 서명하여 주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

셸던 실버(Sheldon Silver) 주의회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이 중동 지역의 테러 지원국임은 비밀이 아닙니다. 이 전제 정권은 이스라엘과 서방국가를 목표로 암살과 인질극, 폭탄 테러 및 납치에 이르는 테러 활동과 연계되어 왔습니다. 뉴욕주가 이란의 테러리스트 활동과 핵무기 개발에 자금줄이 되고 있는 기업들과의 거래를 차단함으로써 세계를 보다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쿠오모 주지사가 신속하게 법안 통과에 서명해주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

###

추가의 뉴스는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Korean